

협회뉴스 강북지회, 현판식 갖고 ‘재탄생’



강북지회(지 회장 송용곤)는 1월 20일 강북구 번1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기준 중앙회장, 박성열 강북구의회의원, 홍승일 강북구청 건설관리 과장, 홍사범 강북구 번1동 동장 회원사와 협력체 등이 참석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강북지회를 축하해 주었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여러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북지회가 새롭게 탄생하는데 협회장으로서 강북지회 임원과 회원들

에게 감사하고 아무쪼록 어렵게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서 회원여러분들의 사심없는 협조를 당부 하였다.

송용곤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강북지회를 재건하고 싶어서 뜻있는 회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현판식을 갖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였다.

박성열 구의회의원은 “서민들의 난방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주는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강북지회 현판식을 축하하며 업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는 부분 등을 건의하여 주면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하였다.